

# 美대학 親팔레스타인 시위 격화...시위대 체포·강제해산

### 동부 아이비리그 중심에서 서부까지 확산 텍사스대에선 진압봉 든 기마대까지 동원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과 관련,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재점화한 시위는 동부를 넘어 중부, 서부 지역 대학으로 번지면서 2일(현지시간) 한 층 더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학 내 반전 시위가 최근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 측의 요구로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거나 체포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커닝 학생과 시민들의 반발만 유발해 동조시위에 나서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는 이날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직후 진압봉을 든 기마대를 포함해 진압 장비를 갖춘 텍사스주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많은 학생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하이오주립대도 캠퍼스 내 학생들의 시위 도중 2명이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학교 대변인은 "어제 시위가 다른 학생들과 교수진, 교직원에게 방해가 됐고 학교는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다"며 "방해 행위가 계속돼 2명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뉴욕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학생들이 설치한 시위 텐트가 늘어나고 수백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뉴욕경찰은 이 캠퍼스에서 시위대 133명이 연행됐으며, 무질서 행위 혐의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뒤



‘텐트 농성’ 이어가는 학생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풀려났다고 이날 밝혔다.

브라운대에서는 이날 오전 90여명의 학생이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 대학 대변인은 학생들이 대학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의 에머슨대에서도 80여명이 전날 캠퍼스 안뜰을 점거한 뒤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보스톤 경찰은 법 집행 조치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는 시위에 대비해 지난 22일 대부분의 출입문을 잠그고 학교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제한했다.

미네소타대에서는 전날 경찰이 도서

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9명이 연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연행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예일대에서도 지난 22일 시위대 48명이 텐트 농성 해산을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에 전날까지 30개의 시위 텐트가 설치됐고, 이날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도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학교 측 안전요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학생들이 저항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또 경찰이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해 연행하려고 하자 시위대가 경찰차를 둘러싸고 석방을 요구해 결국 경찰이 이 학생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뉴욕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컬럼비아대에서 시위가 8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대와 이를 해산하려는 학교 측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전날 자정까지 해산하라고 최종 시한을 통첩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림트의 '리저양의 초상' 경매 모습.

## 클림트 '리저양의 초상' 경매서 441억에 팔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말년에 남긴 초상화 '리저양의 초상'이 2일(현지시간) 빈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3천만유로(약 441억원)에 팔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클림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17년 그린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 리저 가문의 한 여성을 그린 초상화다.

그림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리저 가문은 유대인으로, 이후 나치 집권 시기

에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25년 전시에 공개된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던 이 그림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오스트리아 한 가족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오며 빈 인근의 한 저택 음침실에 걸려있었다.

앞서 클림트가 그린 다른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은 지난해 경매에서 8천30만파운드(약 1천400억원)에 낙찰되며 유럽 내 예술작품 최고 경매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필리핀, 폭염에 학교 7천여곳 원격수업

### 올해 온열질환 6명 사망...“엘니뇨로 무더위 악화”

필리핀이 체감기온 최고 섭씨 48도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마닐라 일대 등 5개 주 내 11개 지역에서 체감기온이 42도를 넘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기상당국의 경고에 따라 각급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학교가 폭염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 전국에서 공립학교 약 7천 곳이 폭염으로 대면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당국은 이날 전국의 시 등 지방 행정구역 최소 30곳에서 습도 등을 고려한 체감기온이 위험 수준인 4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북부 아파리 지역에서는 전날 체감기온이 전국 최고인 48도까지 치솟았으며 이날도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마닐라도 전날 체감기온이 45도, 실제 기온이 37.1도에 달해 여러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했으며, 이날도 체감기온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 당국은 폭염에 노출되면 열경련, 탈진, 열사병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수분을 풍부히 섭취하며 외출할 때는 햇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를 갖고 나갈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필리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폭

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으며 이중 6명은 사망했다.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의 초등학교 교사 엘린다 알폰소는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무더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게 낫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근처 빈민가에 사는 많은 학생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는 통상 3-5월이 가장 무더위지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보고 있다.

엘니뇨는 태평양 중부와 동부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 올라가는 해수 온난화 현상으로 평균 2-7년 주기로 발생한다. /연합뉴스

## 도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일본 시민단체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18만명분의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와 원자력자료정보실, 후쿠시마현평화포럼 등 3개 단체는 그동안 모아온 서명 용지를 전날 경제산업성을 통해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즉각적인 방류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명을 모아왔다.

이들은 서명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 관련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에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방류

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다른 원전과는 달리 핵연료 잔해(테브리)와 직접 접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며 "안전한 해양 방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일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